

# “5·18 박제화 되지 않고 현재 속에서 호흡하길 바랍니다”

## 시민 참여 5·18 홍보 동영상 만드는 권민국·김민주 부부

### SNS 캠페인 확산...외국인 등 각계각층 호응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위한 길”

“5·18이 발생한 1980년 광주. 만약 당시에 SNS가 있었다면 그렇게 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현재 대중을 보면 SNS가 존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판단한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죠.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안한 것도 5·18이 박제화 되어버린 채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 속에서 호흡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게 됐어요.”

기업이나 대학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시네마틱 퍼슨(CINEMATIC PERSON) 권민국(31·왼쪽) 감독. 그는 5·18 35주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인터뷰 내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518 기념재단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권 감독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억하겠습니다 5·18’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5·18이란 주제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많은 시민이 역사 알리기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A4크기 종이에 큰 글씨로 ‘기억하겠습니다, 5·18’을 적은 후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캠페인링크 주소(<http://me2.do/G7JnfxXC>)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또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기억하겠습니다 518’을 검색하면 공식 페이지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지난 2월 7일 개설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https://www.facebook.com/wewillremember518>)에는 1일 현재 2024명이 ‘좋아요’페이지를 눌러 지지의사를 밝혔고, 134명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냈다.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은 광주시민과 학생을 넘어 대학교수와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서 보낸 사진은 5·18 홍보 동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 중인 시네마틱 퍼슨 권 감독과 20여 명 직원 모두는 80년이

후 태어났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직원이 없다. 그들이 광주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억하겠습니다, 5·18’ 캠페인 포스터 모델이자 권 감독의 아내인 김민주(27·오른쪽) 작가는 5·18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지만 담양에서 한빛고등학교를 3년간 다니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 5월 17일인데, 그때마다 전교생이 국립 5·18 묘역까지 걸어서 참배하고, 민주열사들이 산화한 구도청을 방문했어요. 고등학교 3년간 생일마다 망월동을 찾았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그날이 되면 광주를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5·18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5·18이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모두의 역사’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세웠다. ‘1980년 5월 광주에 SNS가 있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유가족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며 광주가 왜 민주인권도시라고 불리는 지에 대해 실감하게 됐다. 특히 5·18이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느꼈다. 김 작가는 유가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실을 새로 깨닫기도 했다.



“5·18 유가족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요. 세월호 참사는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주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5·18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차별받으며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한 채 30여 년간 숨죽이며 살아야했어요.”



권 감독은 우리가 5·18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가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해요. 또한 책임자들을 확실하게

밝혀 처벌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해요. 그래야 그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알고 똑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5·18을 기억하는 게 곧 현재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요.”

/양세원기자 hot@kwangju.co.kr

## 남구 노인회 대촌지회 장수 기원 나눔행사



광주 남구 노인회 대촌지회(회장 김선배)는 최근 대촌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150여명 회원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떡국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

## 기아차 광주공장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오른쪽 두번째)은 최근 광주공장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 구입비 후원 행사’를 열고, 장희국 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차 제공>

## 심헌문화재단 2015년 장학금 1억20만원 전달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지영)이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그랑시아웨딩컨벤션 연회실에서 2015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우수학생 64명에게 1억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심헌문화재단은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모아건설이 11억원의 자산을 출연, 2005년 12월 설립됐으며 지난 10년간 680여명의 지역 인재들에게 1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박 이사장은 “모아건설과 심헌문화재단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안순일 전 광주시교육감 별세

‘실력 광주’를 이끈 안순일 전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안 전 교육감은 지방인 대장암이 재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보성 출신으로 조대부고·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평교사를 시작으로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교육장 등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90년 교단선진화 사업을 최초로 기획했으며, 2006년 ‘ 으뜸 광주교육, 실력 광주’를 내걸어 제6대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수능 6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진학을 전국 1위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정희(63세)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신대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광신대학교(총장 정규남)는 최근 대학 은혜관 3층 대예배실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대학원생 131명, 학부생 102명 등 총 263명이 학위를 받았다. <광신대 제공>

## 광주 북구 ‘옥외광고업무 평가’ 장관상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운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명제’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와 광고물 설치 특정구역 운영 등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끈 점도 호평을 받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하계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전남관광 지오판매대 수익금 모아 장학금



여수 경도리조트 운영사인 전남관광(주)은 최근 여수 월호동사무소에서 경호초등학교 이모군에게 군교구마 등 지오판매대 수익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40만원을 전달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홍순구·김영자씨 장남 응표군 이광섭·박정희씨 장녀 연주양=7일(토) 낮 12시 40분 상무리컨벤션웨딩홀 2층 자스민홀.

### 종친회

▲경주 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이사회=5일(목) 오후 6시 광주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 동창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한마음대축제 관련 회의=3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라파스타웨딩홀(구 메리아트웨딩홀) 062-361-268.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모임=4일(수) 오후 5시 30분 광주 금남로 5가 유명회관 062-512-5574.

▲목포고 제5회 정기총회(회장 조보규)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기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모집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

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동구자원봉사센터 교육생 및 전문강사=1-교육강사 활동 가능한 성인, 퇴직교사, 강의경력자. 2-동화구연, 종이접기 교육수강생. 3-동(洞)자원봉사 캠프지기학운동, 지원1동 인근 주민 4-경로당 문화활동 전문강사 여가프로그램 진행가능자. 3월6일까지 마감 062-228-1365.

▲20음5년 광주불교문화대학 신입생=대학(기초교과)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월1회 불교문화 유적 답사. 대학원(경전공부) 주간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야간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062-228-9098.

### 부음

▲백삼심씨 별세 김태형(해람의원원장)·지역·지아·지실·은실(광주대 교수)씨 모친상 박세린씨 시모상 박상우·김준규·조재영·임동욱(광주일보 서울 취재부장)씨 빙모상=발인 3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101호 故주계남 님 (남/64세)</b> 子/子婦: 주중진/이계희, 주승연 女/婿: 주영희/정철우 未亡人: 민도연 *발 인: 3월 2일 *장 지: 영암 금정선영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도기우 님 (남/70세)</b> 子/子婦: 도관수/김혜미, 도현수/정 순 女/婿: 도주영/남진석 *발 인: 3월 3일 *장 지: 영암 금정선영 *연락처: 227-4386
<b>201호 故임종원 님 (여/85세)</b> 子/子婦: 최정원/박영민, 최성민/정혜숙, 최영민/최영민 女/婿: 최희준/김규석 未亡人: 조희순 *발 인: 3월 2일 *장 지: 영암 금정선영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박노진 님 (남/75세)</b> 子/子婦: 박종원/고은아, 박문수/박민희 女/婿: 박수영/방재현 未亡人: 조희순 *발 인: 3월 3일 *장 지: 영암 금정선영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양동규 님 (남/87세)</b> 子/子婦: 양정원/최인숙, 양희영/최미리, 양영민/김연지, 양민영/최영민 女/婿: 양해경, 양미경 未亡人: 정계순 *발 인: 3월 3일 *장 지: 회남 능주선영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박분님 님 (여/88세)</b> 子/子婦: 김종원/김영애, 김종락 女/婿: 김경자/김영수 *발 인: 3월 2일 *장 지: 정동 부산선영 *연락처: 227-4314
孝  금호장례식장  弔 http://www.mykumho.com	